

걸프戰 후의 국제유가 향방

尹 東 勳

(産業研究院 책임연구원)

세인 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걸프전쟁이 美國 등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전격적으로 무력 침공하면서 발생한 걸프사태는 UN이 설정한 금년 1월 15일의 이라크 철수시한을 넘기고 1월 17일 다국적군의 공군력 사용에 따라 전쟁으로 비화되고 말았다. 이어 2월 24일, 지상전으로 확대되었고 2월 27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휴전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걸프전은 종식되었던 것이다.

군사적 측면의 걸프전은 일단 마무리된 상태이지만 앞으로의 초점은 세계 1차에너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의 국제가격 움직임으로 바뀌고 있으며, 1달러 등락할 때마다 도입금액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우리나라로서는 유가관심이 대단히 높은 편이다.

이제까지의 국제석유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작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만하더라도 국제유가는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WTI) 기준 배럴당 16달러선, 중동산 두바이 기준 12달러선까지 하락하였으나, 7월말 OPEC총회에서 기준유가가 배럴당 18달러에서 21달러로 3달러 인상되면서 국제유가도 반등조짐을 보였고, 걸프사태의 발생이 상승세를 가속화시켰다. 걸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던 작년 10월초에는 무려 40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이는 지난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79년의 사상최고치 45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작년 한때 40달러 돌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UN에 의해 이라크와 쿠웨이트에서 공급되던 하루 약 400만 배럴의 원유가 금수되면서 세계석유시장은 상당한 공급불안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전 세계원유공급이 과잉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수급요인만으로 국제유가를 2배 이상으로 치켜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기 어렵고, 당시 걸프사태의 불투명에 대한 각국이 전쟁이라는 예측불허의 최악상황에 대비하려는 비축경쟁수요에다 석유달러 등의 투기수요가 가세하는 등 기수요가 더 큰 작용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월 17일 걸프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달러이상 내려가는 급락현상을 빚었다. 그동안 시장을 뒤덮고 있던 사우디의 산유시설 파괴, 걸프만 수송중단 등의 염려가 다국적군의 압도적인 화력앞에 완전히 불식되었던 것이다.

앞으로 국제석유시장에 큰 영향을 줄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OPEC의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OPEC은 작년 8월말 긴급회의에서 400만배럴의 금수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11개회원국이 유류생산시설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OPEC의 원유생산은 작년 8월의 하루 1,990만배럴에서 작년 12월 2,350만배럴로 증가하여 공급과잉이었던 작년 7월의 2,320만배럴을 상회하였고, 금년 1월과 2월에도 공식쿼터 2,250만배럴보다 많은 하루 2,290만배럴, 2,300만배럴을 생산한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추계하였다. 일부에서는 2월의 OPEC 산유량이 2,363만배럴에 이르렀다고 보도하여 공급과잉감을 심화시키기도 하였다.

걸프전쟁중에도 원유수급 완화

반면 석유수요는 격감하였다. 작년 4/4분기 자유세계의 석유수요가 하루 5,370만배럴에 그쳐 당초 전망치보다 160만배럴 감소하였고, 이 중 선진국에서 150만배럴의 수요감소가 이루어져 고유가현상에 대해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하여 비교적 신속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금년에는 미국의 경기둔화와 고유가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자유세계의 석유수요가 전체경제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하루 5,300만배럴에서 5,290만배

럴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다보고 있다.

특히 난방유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석유비수기 여름철이 도래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유가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하절기에는 석유성수기인 겨울철보다 하루 약 200만~400만배럴씩 석유수요가 감소하는 계절적인 약세기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OPEC은 3월 중순에 열리는 회의에서 최근의 국제석유시장을 검토하여 하루 약 100만~200만배럴정도의 감산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국제유가는 글자 그대로 10달러라는 폭락사태를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도 유가회복방안 수립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이 경우에도 OPEC이 목표로 삼고 있는 21달러수준을 회복할 여지는 그리 크지 않으며 반등폭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OPEC의 과거 역사에서나 현재 OPEC의 내부사정에서 이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OPEC은 지난 '87년 2월 배럴당 18달러라는 목표가격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여 왔으나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목표가격이 달성된 적이 없었다. OPEC현물평균유가는 '87년에 배럴당 17.2달러, '88년에 13.6달러, '89년에 16.5달러, '90년 상반기에 16.1달러 등 모두 OPEC이 스스로 설정한 기준치에 미달하고 있다.

OPEC 저유가→감산공식 반복

증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OPEC은 명목상 국제석

〈表-1〉 자유세계 석유 수급

(단위 : 백만B/D)

	1988	1989	1990					1991				
			1	2	3	4	5	1	2	3	4	5
소 비	51.2	52.3	53.7	51.4	53.1	53.7	53.0	54.1	51.0	52.2	54.3	52.9
O E C D	37.2	37.6	38.4	36.6	37.8	38.1	37.7	38.4	35.8	36.5	38.3	37.2
개 도 국	14.0	14.7	15.3	14.8	15.3	15.6	15.3	15.7	15.2	15.7	16.0	15.7
공 급	51.1	52.4	54.2	54.0	52.4	53.9	53.6	-	-	-	-	-
비 OPEC	29.4	28.6	28.6	28.6	28.6	29.1	28.7	28.5	28.8	28.7	28.7	28.7
O P E C	19.7	21.8	23.7	23.6	21.9	23.0	23.0	-	-	-	-	-

〈자료〉 IEA

유시장의 안정과 회원국들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회원국의 규정위반에 대해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카르텔보다 우선하여 왔음을 지나간 유가추이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국제유가가 조금이라도 강세라 판단되면 자국에 배정된 공식쿼터 이상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유가가 큰폭 떨어져야 공식쿼터제를 강화하는 등 고유가→공급과잉→저유가→쿼터강화라는 악순환을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석유가 여타 원자재와 달리 특수하다고 할지라도 같은 아랍권내에서 석유매장량이 풍부하고 산유시설이 잘 정비된 사우디, UAE, 쿠웨이트 등 대산유국들은 경제개발, 재정수요 증가 등으로 석유를 보다 더 판매하기 위해 저유가와 석유수요 증대를 양측으로 하고 장기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사우디는 현재 하루 800만배럴을 생산, 공식쿼터 540만배럴보다 약 260만배럴 초과하고 있는 데도 이번 걸프전쟁에서 전비분담금이 500억달러 규모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제원조달이 시급한 실정이다. 생산중지파인 사우디는 작년 7월 OPEC회의에서 이라크의 고유가주장에 양보하여 기준유가의 3달러 인상에 동의한 적이 있으나 이번 걸프전에 승리함으로써 OPEC내에서 입지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걸프전을 미국 등 서방 석유소비국들의 도움에 대부분 의존하였던 바 앞으로의 석유정책 수립에 석유소비국들의 입장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라크와 쿠웨이트의 원유수출이 없는 현재도 국제석유시장이 공급과잉상태인데, 이들 양국으로부터 판매가 재개되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국적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본 이라크는 UN의 경제봉쇄조치가 해제되는 대로 원유수출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이고, 유정의 대다수가 화염에 휩싸인 쿠웨이트는 빠르면 6개월정도 걸려 복구될 수 있는 일부 산유시설에서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쿠웨이트는 이란·이라크 전쟁동안 생산쿼터의 예외를 들면서 쿠웨이트에 대한 OPEC의 특별배려를 주장하고 있는 등 이라크, 쿠웨이트를 포함한 OPEC의 쿼터제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일사이클상 약세 주기

특기할만한 현상으로 주목을 끌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급등뒤에 급락이 온다는 오일사이클(oil cycle)이다. 지난 '79년부터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대로 오르는 고유가현상이 장기화되자 세계석유수요는 '80년부터 '84년까지 계속 감소하였고 이에 견디지 못한 OPEC내 최대생산국 사우디마저 조정역할을 포기하고 시장확장정책으로 선회하면서 국제유가는 '86년도 배럴당 10달러 이하까지 가는 대폭락사태를 자초하게 되었다.

작년 하반기 걸프사태의 진전에 따라 유가가 지나치게 급등하자 OPEC관계자들은 금년에 유가가 급락할지도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실제 걸프전이 시작되자 두바이 기준 배럴당 12달러대로 내려 앉았고 유가대폭락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일부의 기대도 나온 바 있다.

국제석유시장의 여건이 약세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지배적이나 소련의 석유사정 등 불안요인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최대산유국인 소련은 장비나후와 조직혼란, 사회불안으로 '89년의 하루 1,220만배럴에서 '90년에 1,140만배럴로 감소하였고, 금년에도 생산과 수출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 UAE와 북해 등 주요 산유시설이 지난 6개월간 거의 풀가동을 하여 왔기 때문에 사고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곧 보수작업에 들어가야 하며, 생산비가 높은 비 OPEC산유국은 국제유가가 낮아 무리하면서까지 증산체제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국의 자발적 감산량도 상당수준에 달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제반요인을 종합해 볼 때 당분간 국제석유시장에서 공급물량이 충분히 공급되게 되어 있어 대규모 공급차질이 없는 한 과잉상태를 근본적으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유가시대가 '80년대 후반기처럼 '90년대전반기 내내 지속할 지의 여부는 차치하고서 금년의 국제유가는 하절기의 약세를 거쳐 동절기에 강세를 보이는 전형적인 추세속에서 두바이 기준 평균 배럴당 15~17달러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이 예상된다.♣